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3.21

미 증시, 은행 위험 통제 기대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속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지역 은행 위험 통제 기대로 상승

•미 증시는 주말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스와프 강화 및 UBS(+3.30%)의 CS(-52.99%) 인수 등으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완화 기대가 강화되자 상승. 다만, 아마존(-1.25%)의 클라우드 부문 구조조정 소식에 MS(-2.58%)와 관련 종목군이 부진해 나스닥은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는 차별화 진행. 한편, 달러화 약세, 국채 금리 상승 등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FOMC를 앞두고 장 후반 일부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결국 은행 문제 통제 기대 속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상승폭 확대 마감(다우 +1.20%, 나스닥 +0.39%, S&P500 +0.89%, 러셀2000 +1.11%)

특징 종목: 지역은행, 에너지, 강세 Vs. MS, 아마존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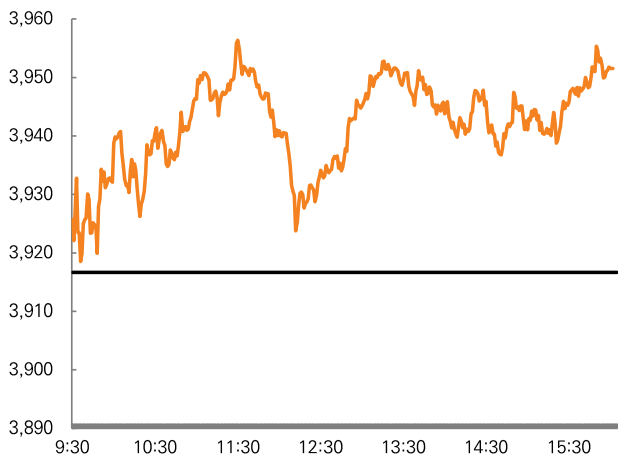
•CS(-52.99%)는 UBS(+3.30%)로 인수되었으나, 인수가가 30억 스위스 프랑에 그쳤다는 점에서 급락. UBS는 상승. 퍼스트 리퍼블릭(-47.11%)은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신용 리스크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 아마존(-1.25%)은 클라우드, 광고 부문 구조조정 소식에 하락.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독점 금지 조사 소식도 하락 요인. MS(-2.58%)는 에버코어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 했음에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관련 부문 구조조정 소식에 하락. 알파벳(-0.39%)도 부진

한국 증시 전망: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 속 강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82%, MSCI 신흥 지수 ETF는 0.3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2.7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87% 상승. KOSPI는 0.7%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의 노력 등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보이자 지역 은행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한편,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 구조조정으로 MS를 비롯해 일부 기술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은 부담. 특히 그동안 강세폭을 확대했던 MS의 경우 낙폭이 컸던 만큼 차익실현 욕구도 높아 한국 증시에서 최근 강세를 보인 종목군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1%, 러셀2000 지수가 1.11% 상승하는 등 한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일부 지수가 강했던 만큼 한국 증시는 0.7% 내외 상승 출발 후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 등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명	Close	D-1(%)	지수명	Close	D-1(%)
KOSPI	2,379.20	-0.69	상해종합	3,234.91	-0.48
KOSDAQ	802.20	+0.60	홍콩항생	19,000.71	-2.65
DOW	32,244.58	+1.20	베트남	1,023.10	-2.11
NASDAQ	11,675.54	+0.39	유로스톡스 50	4,119.42	+1.34
S&P 500	3,951.57	+0.89	영국	7,403.85	+0.93
캐나다	19,519.43	+0.68	독일	14,933.38	+1.12
일본	26,945.67	-1.42	프랑스	7,013.14	+1.2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금융시장 변동성과 FOMC

지난 주말 UBS(+3.30%)가 CS(-52.99%)를 인수한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스와프 강화를 발표하는 등 금융 시스템 우려가 확산되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 스와프 계약의 빈도를 일주일에서 매일로 늘리며 미세 조정까지 단행하는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확대. 이러한 소식은 결국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일부 개별 이슈로 부진한 종목을 제외하고 주식시장은 상승.

이런 가운데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가 시그니처 은행의 일부 자산을 뉴욕 커뮤니티 은행(+31.65%)의 자회사인 플래그스타 은행에 매각한다고 발표. 더불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는 입찰 기간을 3월 말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며 여러 곳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고 주장. 여기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47.29%)에 대해 JP모간이 자본 조달, 매각 등을 자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문제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해결 조짐이 확대.

그렇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 상태. 전미 개인투자자협회(AAI)에 따르면 6개월 후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수치가 역대 평균인 37.5%를 크게 하회한 가운데 유로존 에너지 위기 당시인 지난 9월 이후 최저치인 19.2%에 그쳤고, 하락 전망은 역대 평균인 31.0%를 크게 상회한 48.4%를 기록. 이는 지역 은행 문제가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했기 때문.

여기에 FOMC 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확산하게 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될 수 있어 FOMC 결과에 대한 불안 심리도 높음. 그렇지만, CME FED watch 에서 3 월 금리 25bp 인상 가능성이 73%로 상향 조정되는 등 동결 가능성은 크지 않고, 최고 금리 변화 가능성,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FOMC 이후 안정 가능성이 높음.



에너지, 산업재 강세 Vs. 클라우드 관련주 부진

CS(-52.99%)는 UBS(+3.30%)로 인수되었으나, 인수가가 30억 스위스 프랑에 그쳤다는 점에서 급락. UBS는 상승. 퍼스트 리퍼블릭(-47.11%)은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신용 리스크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 웨스턴 얼라이언스(-6.74%)는 부진한 반면, 이스트 웨스트뱅크(+0.37%), 코메리카(+2.25%), 키코프(+1.21%)는 상승하는 등 지역 은행들은 혼조. US뱅크(+4.55%)는 베어드가 예금 이동의 수혜자로 언급하며 투자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조정하자 강세.

인피이즈 에너지(+4.83%)는 레이몬드가 배터리와 전기차 충전기 등 신규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 델(+3.57%)은 골드만 삭스가 개인용 PC 위축에 따른 역풍이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며 매수로 커버리지 시작하자 상승. 금융 리스크가 완화되며 안정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엑슨모빌(+2.61%) 등 에너지, 허니웰(+2.84%) 등 산업재, 캐터필러(+2.47%) 등 기계 업종, 프리포트 맥모란(+3.37%) 등 광산 업종이 강세.

아마존(-1.25%)은 클라우드, 광고 부문 구조조정 소식에 하락.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독점 금지 조사 소식도 하락 요인. MS(-2.58%)는 에버코어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관련 부문 구조조정 소식에 하락. 알파벳(-0.39%)도 부진. 스노우플레이크(-0.11%), 트와일로(-0.45%) 등 클라우드 관련주 대부분 하락. 이 여파로 AMD(-1.05%)와 인텔(-2.18%)은 레이몬드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부진.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32	대형 가치주 ETF (IVE)	+0.89
클린테크 ETF (CTEC)	+1.24	중형 가치주 ETF (IWS)	+1.51
소매업체 ETF (XLY)	+0.43	소형 가치주 ETF (IWN)	+1.00
온라인소매 ETF (EBIZ)	-0.74	대형 성장주 ETF (VUG)	+0.30
미국 인프라 ETF (PAVE)	+1.69	중형 성장주 ETF (IWP)	+1.11
핀테크 ETF (FINX)	+0.50	소형 성장주 ETF (IWO)	+1.2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8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1.77
클라우드 ETF (CLOU)	+0.06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07
사이버보안 ETF (BUG)	+0.50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74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77	미국 국채 ETF (IEF)	-0.40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52	하이일드 ETF (JNK)	-0.27
바이오섹터 ETF (IBB)	+1.08	신흥국 채권 ETF (EMBD)	+0.28
로봇&AI ETF (BOTZ)	+1.22	물가연동채 ETF (TIP)	+0.09
반도체 ETF (SMH)	+1.01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에너지	596.98	+2.11	-3.16	-7.33
소재	483.52	+2.01	-0.49	-5.56
산업재	826.06	+1.36	-0.52	-5.13
필수소비재	760.78	+1.35	+2.16	-1.15
헬스케어	1,481.55	+1.28	+1.68	-3.59
금융	518.81	+1.13	-1.30	-14.14
부동산	228.79	+1.06	-0.45	-8.09
유틸리티	340.62	+0.81	+3.15	-1.80
커뮤니케이션	183.44	+0.48	+7.19	+1.76
경기소비재	1,101.95	+0.39	+2.52	-5.77
IT	2,506.74	+0.23	+5.33	+2.8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 속 강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82%, MSCI 신흥 지수 ETF는 0.3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2.7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87% 상승. KOSPI는 0.7%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주말 동안 글로벌 각국의 노력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기대가 높아져 상승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도를 보이는 등 수급적인 불안으로 하락 전환. 더 나아가 달러/원 환율이 7.9원 상승하는 등 원화 약세 등도 부담. 여기에 최근 급등하던 2차전지 업종의 변동성 확대 등 차익 실현 매물도 부담을 보이며 KOSPI는 0.69% 하락. 반면, KOSDAQ은 장 초반 급락하던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로 전환한 가운데 바이오 업종도 상승하며 0.60%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의 노력 등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보이자 지역 은행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물론, 신용등급 강등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급락하고 여전히 일부 지역 은행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 지역 은행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지역 은행들은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를 보여 사태 해결 기대를 높임.

한편,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 구조조정으로 MS를 비롯해 일부 기술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은 부담. 이 소식에 클라우드 관련 종목군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한국 증시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특히 그동안 강세폭을 확대했던 MS의 경우 낙폭이 컸던 만큼 차익실현 욕구도 높아 한국 증시에서 최근 강세를 보인 종목군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1%, 러셀2000 지수가 1.11% 상승하는 등 한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일부 지수가 강했던 만큼 한국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7% 내외 상승 출발 후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 등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물가 둔화

독일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1.2% 하락을 뒤로하고 0.3% 하락에 그침.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된 17.6% 상승보다 둔화된 15.8%로 발표.

유로존 1월 무역 적자는 306억 유로를 기록해 지난해 1월 386억 유로보다는 적은 수준을 보였으나 지난달 88억 유로 적자에 비해서는 큰 수준으로 증가. 수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반면, 수입은 9.7% 증가에 그침.



국채 금리, FOMC 앞두고 단기물 중심 급등

국제유가는 장 초반 지역 은행 리스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급락하기도 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 특히 지역 은행 일부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문제되던 은행들에 대한 인수 합병 소식도 관련 우려 완화에 도움. 더 나아가 중국의 북해 원유 구매가 강력한 수요 회복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상승 전환 요인으로 작용. 미국 천연가스는 온화한 날씨와 LNG 수출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유럽 천연가스는 봄이 다가와 난방 수요 감소가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이 급락.

달러화는 CS가 UBS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으로 유로존 금융 시스템 우려가 완화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특히 유로화는 CS 문제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 파운드화도 강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자 달러대비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제한. 역외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브라질 헤알, 멕시코 페소 등도 강세.

국채금리는 투자자들이 지역 은행 위험을 통제될 것이라는 희망이 유입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급등. 특히 FOMC를 앞두고 연준의 25bp 금리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단기물의 강세가 뚜렷. 다만, 장 후반 FOMC에 대한 우려와 기대 속 등락이 제한된 점도 특징.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되며 상승한 품목도 있으나, 일부 품목은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하는 등 혼조 양상. 곡물은 흑해 곡물 수출 거래 기간 연장 소식에 밀과 옥수수 중심으로 하락. 대두는 중국 수입 급증 소식에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95%, 철근은 0.85%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7.64	+1.17	-9.73	Dollar Index	103.314	-0.38	-0.27
브렌트유	73.79	+1.00	-8.75	EUR/USD	1.0723	+0.50	-0.07
천연가스	2.22	-4.15	-14.01	USD/JPY	131.38	-0.36	-1.37
금	1,999.70	+0.50	+3.47	GBP/USD	1.2275	+0.84	+0.76
은	22.65	+0.90	+3.38	USD/CHF	0.9292	+0.33	+1.90
알루미늄	2,274.50	+0.02	-2.53	AUD/USD	0.6718	+0.31	+0.75
전기동	8,697.50	+1.37	-2.61	USD/CAD	1.3664	-0.49	-0.49
아연	2,885.50	-0.33	-2.07	USD/RUB	76.7339	-0.36	+1.74
옥수수	633.00	-0.24	+3.14	USD/BRL	5.2383	-0.77	-0.16
밀	700.75	-1.58	+2.15	USD/CNH	6.8735	-0.18	+0.31
대두	1,486.00	+0.54	-0.45	USD/KRW	1,310.10	+0.61	+0.64
커피	178.50	+1.08	-0.39	USD/KRW NDF1M	1,302.78	-0.31	+0.6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477	+4.86	-9.60	스페인	3.197	-3.10	-17.00
한국	3.290	-11.50	-13.50	포르투갈	3.011	-2.30	-18.80
일본	0.250	-3.80	-9.80	그리스	4.107	-4.90	-19.60
독일	2.125	+1.70	-13.40	이탈리아	3.988	-6.60	-19.5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